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가치 재조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개최 韓·中·日 사례 비교 분석... 농업 시스템 발전 방향 모색

완도군이 청산도 구들장 논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구들장의 보전과 가치를 재조명했다.

4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형성해 온 농업 시스템 중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청산도 구들장 논은 2014년 등재돼 올해 10주년이 됐다.

완도군은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이후 10년 보전·관리 활동을 재조명하고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시스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한·중·일 세계중요농업유산 자문 위원, 한국농어촌유산학회 및 농업 유산 전문가, 청산도 구들장 논 보전추진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신 군수는 청산도 구들장 논 지리적 한계, 기후변화, 경작하기 어려운 농업 시스템 구조에도 불구하고 공동경작, 휴경기 정비, 생태학교 운영 등을 통해 농업 유산의 가치를 지키는 데 힘쓰고 있는 박근호 구들장 논 보전추진회 이사장과 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세미나에서는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1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희망 ▲중국(Jiao Wenjun 중



완도군이 최근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국과학원 교수)과 일본의(Akira Nagata 유엔대학교 첨단연구소)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이후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농업 유산 제도가 발전된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발전 과정과 동향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산도 구들장 논은 논 바다에 온돌

형태의 구들장을 놓고 통수로 만들어 아래 논으로 물이 흐르도록 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작물 냉해를 방지토록 설계됐다.

섬 지역의 부족한 농업용수 해결을

위한 독특한 형태의 관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게 됐다.

신우철 군수는 "청산도 구들장 논은 농업의 역사와 환경, 문화, 경관 등 다방면으로 가치가 높다"며 "유산으로 지정되는 일만큼이나 보전하는 일도 어렵기에 세미나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활용 방안이 제시돼 농업 시스템 보전에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산도 구들장 논은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에 이어 다음 해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며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2022년에는 세계관개시설물유산(WHIS)으로도 등재됐다.

군은 청산도 구들장 논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농업 유산 주민 협의체인 구들장 논 보전추진회가 자율적으로 보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왔다. /완도=윤보현기자

강진군, 전국 첫 '디지털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 구축

업무 효율·투명성 강화... 농업 디지털 전환 선도 전국 확산 시 농민 소득·쌀값 안정화 역할 기대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이 성공적인 현장 검증을 마치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디지털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국비 10억원 전액을 지원받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한 이 플랫폼은 농업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에 처음 적용된 이 플랫폼은 기존의 수기 작성 방식을 전자 서명하고 전자 매입증명서 발급 등 디지털 프로세스로 전환

했다.

이를 통해 물량 집계 오류를 제거하고 실시간 데이터 공유로 업무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강진군 관계자는 "플랫폼 도입 이후 매입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해졌으며,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강진군 농민 박정용씨는 "예전에는 공공비축미를 납품한 후 종이로 매입 증명서를 받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전했다.

강진군의 성공 사례는 중앙부처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남도, 충북 관계자는 "강진군의 플랫폼이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잘



강진군 '디지털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이 모의수매의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 <강진군 제공>

보여주는 사례"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진군은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의 전국 확산을 위해 지난 10월 자문단을 발족해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또한 군은 해당 플랫폼이 농업의 중

요 과제 중 하나인 투명성과 효율성을 해결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농민 소득 안정화와 쌀값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이 선도한 해당 플랫폼이 전국으로 확대돼 농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에 '농농길 치유숲' 조성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일환...수려한 소나무 숲·힐링 공간

청년마을로 조성되고 있는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에 농농길 치유숲이 조성됐다. <사진>

4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농길 치유숲은 옛 옥동초등학교 건물 뒤쪽으로 이 어진 소나무 숲을 새롭게 가꾸 주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마을 만들기를 주도하고 있는 농농길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해 올해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주민·단체 참여숲으로 조성됐다.

농농길 치유숲은 쪽 뽕은 소나무 군락지가 특색있는 곳으로, 평소에도 인근 마을 지역주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사랑 받아왔다.

기존에는 폐교 건물 뒤편의 학교 숲이었으나 노후된 야외무대와 벽면 클라이밍 공간 등을 철거하고, 잡목으로 우거진 숲의 밀도를 정리해 소나무의 수려한 경관미를 뽐냈다.

소나무숲 아래쪽으로는 맥문동을 식재해 여름철 보랏빛 숲속 정원으로 가



꿀 계획이다.

또한 농농길추진위원회를 통해 숲속 미술관의 개념을 도입, 작품전시와 창의적인 야외공간으로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마을은 전남형 청년마을을 조성사업과 농농길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해남형 청년 거점마을을 조성 중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년마을 치유숲이 지역민들에게는 휴식을 주고, 외지인들도 찾아올 수 있는 산림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영암군, 6·25 참전 故 임상식 일병 무공훈장 전수

1952년 강원 금화지구 전투서 전사...유공자 희생정신 재조명

영암군이 6·25전쟁 참전용사 고(故) 임상식 일병의 훈장을 유가족에게 전수하고 고인의 희생을 기렸다.

4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군청에서 고(故) 임상식 일병의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유가족에게 전수했다. <사진>

영암군은 20세이던 1952년 군에 입대해 같은 해 9월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영웅으로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으로 공적을 재조명받았다.

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이 결정됐지만 유가족에게 훈장 전수가 이뤄지지 못했고, 캠페인을 거쳐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전수식에서 화랑무공훈장은 임 일병의 조카인 확산면 지소마을의 임기석씨에게 전달됐다.

영암군 공직자들도 자리에 함께해 임 일병의 희생을 기리며 의미를 더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후대에



그 뜻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늦었지만 유가족에게 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암군은 이번 훈장 전수식 이외에도 국가 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살피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영암=나동호기자

신안군보건의료, 골밀도 측정기 도입 수급권자등 무료·이외군민 5천원

신안군보건의료는 4일 "이달부터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골다공증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골밀도 측정 장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전신 골밀도 측정기로 척추, 대퇴골 등 주요 신체 부위의 뼈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방사선 골밀도 장비다. 신안군보건의료에서 운영하는 골밀도 검사수수료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다. 이외의 검사를 원하는 군민은 5천원이며, 검사는 보건소로 문의(061-240-8808) 또는 방문 예약 후 받을 수 있고 당일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안=양훈기자

'철통 방역' 나주시, 道 가축방역 평가서 대상

AI 발생 0건 기록...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총력'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시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로 전남도 가축방역위생 시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3-2024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0건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방역 대응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19개 항목 55개 세부사항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나주시는 전국 1위 오리 생산지로 가금류 224개 농가 중 117개 농가에서 218만7천여 수의 오리를 사육 중이다. 인

접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음에도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24시간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비발생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고위험·취약지역 오리농가 47호에 대한 사육 제한 조치와 소독차량 20여 대를 동원해 농장 입구와 진입로, 철새도래지, 산란계 밀집단지를 상시 소독 중이다. 농장 자체 방역을 위해서도 소독약 5t, 생석회 40t, 출입기록부 20부 등 방역 물품을 동절기 이전 일제 배부했으며 출하 후 재입식 농가 방역 시설을 대상으로 3단계 점검을 추진하

는 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나주축협, 수의사협회, 방역본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방역본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방역본부를 원할히 수행하며 AI뿐만 아니라 구제역, 렘피스킨 등 타 가축전염병의 청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철새 도래철을 맞아 농장 전담 공무원, SNS,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방역 수칙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윤병태나주시장은 "내농장은내자신이 지키는 마음가짐으로 가축전염병 청정 유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정종환기자

한국섬진흥원, 목포 외달도서 '미리 크리스마스'

ESG 사회공헌...목포시·(사)독도사랑운동본부 공동 기획

한국섬진흥원(KIDI)은 4일 "전날 목포 외달도 다솜센터에서 섬 주민들과 함께하는 연말 사랑나눔 '미리 크리스마스 in 외달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최근 크리스마스, 송년회 등 연말 행사로 도심이 북적이는 가운데 섬 지역에도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고자 한국섬진흥원과 지자체, 단체, 기업 등이 힘을 모은 것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섬진흥원과 목포시, (사)독도사랑운동본부가 추운 겨울을 나는 외로운 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공동으로 기획했다.

행사는 ESG 사회공헌을 모티브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찾아가는 섬 문화행사(노래교실 및 레크리에이션) ▲식료품 꾸러미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어르신들과 함께 '나만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작했다. 플라스틱이 아닌 살아있는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했으며, 완성품은 어르신들의 반려시물 이 될 예정이다.

눈여겨볼 점은 연예인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독도사랑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봉기, 김완기, 모미나 등 연예인 홍보단으로 이날 노래교실 및 레크리에이션 문화행사를 주관했다.

또한 식료품 꾸러미 전달식에서 BG F리테일의 CU는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는 식료품을 외달도 섬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유아용 쌀과자로 알려진 '올바름' 김정광 대표도 기부에 동참했다.

남기상 한국섬진흥원 교류협력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섬 주민이 문화 혜택을 누리며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좋은 콘텐츠를 발굴해 보다 많은 기관, 단체들과 섬 주민들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